

통권 제 253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11

여시아문
소라고동법螺



경전에서 찾은 지혜
질투의 업보



생각의 열매
연작홍곡 燕雀鴻鵠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충지중

고통 속에 안락 찾으면

무상^{無常} 속에서 진리^{真理}를 찾고
고통^{苦痛} 속에서 안락^{安樂}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佛敎}의 수행^{修行}이다.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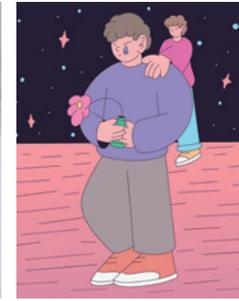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불교 이야기 _09
밀교와 관음신앙
_① 관음의 기원
_ 원당 정사



마음챙김 메커니즘 _18
하심^{下心}과 참회^{懺悔}
- 수행의 두 바퀴 ②
_ 임진수



마지막 공부 _44
엄마, 치매 걸렸어?
_ 유소림

- 04 여시아문
- 09 불교 이야기
- 14 경전에서 찾은 지혜
- 16 지장 스님의 향유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절기 이야기
- 24 문화유산 해설
- 28 고전 속으로
- 32 산책
- 34 살다보면
- 40 지혜의 뜨락
- 44 마지막 공부
- 48 슈베르트 따라잡기
- 53 동행
- 58 평상심시도
- 58 담마빠다
- 60 생각의 열매
- 62 십선성취
- 66 우리 절 노래꽃
- 68 서원당 안의 불교
- 70 금쪽상담소
-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6 가로 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 일정

- 소라고동^{法螺} — 승원 정사
- 밀교와 관음신앙_① 관음의 기원 — 원당 정사
- 질투의 업보 — 불교총지중 법장원
- 이는 것과 경험하는 것 — 지장 스님
- 하심^{下心}과 참회^{懺悔}_수행의 두 바퀴 ② — 임진수
- 겨울나기 준비하라 입동^{立冬}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청자 모란 무늬 국화모양 합 — 위드다르마 편집실
- 바로, 오늘이다! — 신로사
- 높은 하늘 — 김대곤
- 나에게 묻는다 — 이육경
- 불교의 경제관이 필요하다 — 방귀희
- 엄마, 치매 걸렸어? — 유소림
- 깊은 사랑이 지나쳐 — 우벽송
- 인생예찬 — 탁상달
- 무상^{無常} — 김천
- 존경 받는 삶 — 화령 정사
- 연작흥곡^{燕雀鴻鵠} — 위드다르마 편집실
- 결혼, 종교 그리고 이혼 — 남혜 정사
- 오늘은 좋은 날 — 묘원화 전수
- 성도^{成道}합시다와 성불^{成佛}하세요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4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회

허비하는 시간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나방 기다리며
봉오리 병그는 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 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꽃에는 한 생이었구나
- 시인 고두현 <20분> 중에서

내가 게으름 부리며 허비한 20분이
달맞이꽃엔 한 생애입니다.
내가 불평불만 하며 보낸 하루가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이유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또 누구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그렇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축복이자
행복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 10. 3.



부처님께서 나란다에 계실 때 니간타 나타뿃따의 제자인 촌장 아씨반다까뿃따에게 그들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물었습니다.

촌장은 자기의 스승인 니간타 나타뿃따는 제자들에게 “누구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주지 않은 것을 빼앗으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샳된 음행을 하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명이 이끌려진다.”라고 가르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촌장이여, 그와 같은 스승에 대해 그 제자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모두 악처,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적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악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촌장이여, 그는 그 말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 - 『상웃따 니까야』의 「소라고등^{법라} 소리경」(S42:8 「Saṅkhadhama-sutta」)

부처님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시며,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운명이 이끌려진다.’는 논리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행을 저지르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가르침은 그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나는 지옥이나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게 만들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이라 살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음은 조건 지어져 있어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욕심을 내고 화내며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마치 쳇바퀴 돌 듯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수행이 과거의 악행이 아니라 지금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을 흔히 ‘흙탕물이 가득 든 물병에 맑은 물을 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흙탕물에 맑은 물을 많이 부으면 점점 맑아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앙굴리말라 같은 살인자도 부처님께 제도되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살인의 업보는 피해 갈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여 괴로움 없는 저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촌장이여, 여래는 여러 방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여러 방편으로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샅된 음행을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또한 남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러한 악행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만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잘못을 되풀이해서 악업을 키우지 말고, 악업 짓는 윤회의 사슬에서 해탈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존으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받은 제자들은 이러한 악행을 버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삼독심이 없는 상태를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 바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四無量心}’입니다. 삼독심과 사무량심은 한마음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탐진치 삼독심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삼독심은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삼독심이 강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 ‘알아차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삼독심 없는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화·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바른 견해로 다스려야 ‘욕심내고 화낼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촌장이여, 그 고귀한 제자는 탐욕을 떠나고, 성냄을 떠나고, 어리석음을 떠나 알아차림^{sati}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알아차려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동쪽을 가득 채우며, 남쪽을 가득 채우며, 서쪽을 가득 채우며, 북쪽을 가득 채우며,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웁니



Photo by Hristo Anestev@Unsplash

다. 촌장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소라고동^{별라이}이 적은 노력으로도 사방에서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촌장이여,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에 의한 해탈이 이와 같이 수련되고, 이와 같이 성장하면, 유한한 업의 세계^{육계}는 거기에 남아 있지 않고,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잘 수행된 마음은 탐진치가 적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은 많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탐진치를 줄이면, ‘소라고동이 적은 노력으로 사방에 들리는 것처럼’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쟁에서 단신으로 수천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의 삼독심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셔서 욕심·화·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옴마니반메훔.

석가세존과의 일체관

대승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부파불교의 불신관을 바탕으로 불타의 삼신설을 전개해 제불, 제보살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보디삿트바^{Bodhisattva}’를 음역한 ‘보리살타’의 줄임말이다. 보살은 ‘각유정^{覺有情}’이라고 번역하며, 이는 ‘깨달음을 소유한 유정’, ‘깨달음의 유정’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보살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나 피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한 대비심으로 이 사바세계에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원을 실천하고 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동시에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으로 모든 중생을 포섭하여 대자대비의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고 고난에서 구제하는 이타행^{利他行}의 서원을 가지고 있다. 이타행은 보살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이것의 실천자로 관음·지장·문수·보현·미륵 등의 많은 대보살들이 등장했다. 석가세존이 입멸한 후 부파불교, 대승불교 시대를 지나며, 석가세존은 상주불멸의 법신불로 승격되었고, 관음·지장·문수·보현·미륵 등의 대보살들은 석가세존이 담당

했던 구원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보살들에 대한 초인화가 이루어지고, 그 구제력이 강조되었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응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보살들 중에서 관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을 지니고 일체중생의 고난을 구제하는 자비의 덕을 상징하는 보살로서 널리 신앙되고 있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불타의 응화신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곧 석가세존을 관음보살로 보는 것이다. 성불한 석가세존이 보살신으로 나타나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펼치는데, 이것이 곧 관음보살인 것이다.

석가세존은 상주불멸의 대위신력을 갖춘 법신불로 본다. 석가세존은 『열반경』 「금강신품」에서 “선남자여, 너는 이제 마땅히 알라. 여래의 몸은 금강신이며, 오늘부터 항상 오롯한 마음으로 이 뜻을 사유할지니, 마땅히 사람들을 위하여 여래의 몸은 곧 법신임을 설하도록 하라.”라고 설하여, 자신이 육신의 불타가 아니라 멸하지 않는 법신불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음보살은 이 법신불이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는 대비행의 실천자로서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관음보살을 법신불인 석가세존의 응화신으로 보는 것이다. 석가세존이 성불하였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비의 덕을 갖춘 보살신으로 나타나 다양한 응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응화신의 근본인 석가세존을 본존으로 본다. 이러한 응신설은 밀교에 이르러 극대화되어, 모든 불보살의 근본은 법신 대일여래라 하여 관음보살도 바로 법신 대일여래의 응현이라고 보고 있다. 관음보살이 이러한 신통력과 자비, 방편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법신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경전 상의 기원

인도에서 관음신앙이 일어난 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인 기원후 1~2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율·론 삼장 가운데 부분적으로 관세음보살에 관해 언급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법화경에 속하는 경전은 7종이 있으며, 밀교부에 속하는 것은 50여 종, 반야부에 속하는 것은 2종, 유가부는 1종 등 80여 종에 이른다. 관세음보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관음신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전은 관음신앙의 기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다. 관음신앙은 기원후 1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간다라^{Gandhara} 지방에서 발견된 관음보살상과 함께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원후 1세기경부터 전개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원후 1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안내로 53선지식을 만나면서, 28번째로 남천축국의 보타락카Potalaka산에서 관자재보살을 친견한다. 관자재보살은 선재동자가 보살행과 보살도에 대하여 묻자, 일체 중생이 18종의 공포를 벗어나도록 하는 서원을 세워 대비법문광명행을 성취하였다고 답한다. 여기에서도 관음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능엄경』 「이십오원통장」에서 관세음보살이 등장한다.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삼매에 들게 된 연유를 설명하며, 이근원통이 가장 수승하고 말세 중생이 수행하기에 쉬운 방편이라고 찬탄한다.

힌두교의 영향

관음신앙의 또 다른 기원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래 불교에서 대승보살 신앙의 출현은 힌두교Hinduism의 발흥과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자재보살의 산스크리트 어원 Avalokiteśvara에서 찾아볼 수 있다. Īś vara는 자재신, 즉 힌두교의 절대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브라만 사상에서 우주의 원리인 브라흐만Brahman이 우파니사드Upaniṣad 시대에 이르러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나타났다. 따라서 힌두교의 인격신 Īś vara의 절대자 개념을 관자재보살의 명칭에 수용하여 관음신앙을 전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힌두교에서 비슈누Viṣṇu신과 시바Śiva신은 가장 대중적인 신앙의 대상이다. 비슈누신이 대중적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기따>에 반영된 이후이다. <기따>는 인도의 서북부 지방에서 바수데바Vāsudeva라는 신을 지존으로 신봉하던 바가바따bhagavata파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전이다. 이 바가바따파가 살던 지방에서 끄리슈나Kṛṣṇa라는 영웅이 신격화되어, 바수데바-끄리슈나신이 비슈누신과 동일시되었다. 그리하여 끄리슈나신은 비슈누신의 화신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요가-마야yoga-māyā에 의해 인간 세계에 화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힌두교의 화신사상은 불교의 관음신앙에도 영향을 끼쳐 관음보살의 응신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에 어떤 두 형제가 불법에 뜻을 두어 출가하여 수행하였다. 형은 부지런히 수행하여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은 매우 총명하여 경전을 부지런히 익혀 삼장을 모두 외웠기 때문에 삼장법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나라의 재상이 삼장법사를 건축사로 초빙하여 많은 자금을 주고 승방과 탑사를 건축하게 했다.

재상은 삼장법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삼장법사는 이런 호의를 받게 되자 재상에게 말했다. “제게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출가하여 지금 열심히 수행 중이니 이 절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재상은 곧 사람을 보내 정중하게 청하였다. 그가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재상은 더없이 기뻐했다. 어느 날 재상은 고급 비단을 그 수행자에게 선물했으나, 수행자는 ‘내 동생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니 이런 재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전해 주었다.

재상은 값어치가 천만 냥이나 되는 비단을 삼장법사의 형에게도 보시했다. 형은 그것을 받아 이번에도 동생에게 또 주었다. 동생은 심한 질투심이 일어났다. 삼장법사는 형에게서 받은 비

단을 가지고 재상이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갔다.

이 비단으로 아버지 앞에서 옷을 만드시오. 그 옷감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거든 ‘아버지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수행자가 주었어요.’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녀는 삼장법사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앞에서 옷을 만들었다. 재상은 그 고급 비단을 금방 알아보았다. ‘저 비구는 보기와 다르게 몹시 나쁜 놈이군. 내가 준 비단을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남의 딸을 유혹하려 하다니.’ 재상은 그 뒤로는 비구가 찾아와도 못 본 체하며 돌아섰다.

비구는 재상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보고 ‘분명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거나 모함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비구는 즉시 재상 앞에서 열여덟 가지의 신통을 나타내 보였다. 이를 본 재상은 매우 놀라며 부인과 함께 절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재상은 그 비구를 더욱 존경하고 믿게 되었다. 동생 삼장법사와 딸은 모두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의 삼장법사는 사실 바로 지금의 나이다. 형을 비방하고 모함하였기 때문에 무량겁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손다니의 일로 비방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에 총명한 지혜를 지녀야 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 『잡보장경』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어떤 모임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가끔 큰돈을 벌게 해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수익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 확률만큼 똑같이 돈을 잃을 확률도 높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잘 안다면, 비록 큰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있는 돈을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순간에는 분명히 이해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말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요.

많은 실수를 하고 큰 손실을 보고 나서야 제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인생의



Photo by AbsolutVision@Unsplash

수업료를 많이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 실천한다면 주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떤 경험을 토대로 변화를 배워갑니다. 이론적 배움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될 때 비로소 확고히 자신의 것이 되지요.

평소 마음공부를 해온 사람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쳤을 때, 비록 손실과 고통이 생기더라도 과거 공부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조건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쌓여갈수록 괴로운 상황은 줄어들고 발전적이며 평화로운 상황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주식 투자 전문가의 말을 잘 귀담아듣는 사람에게 손실이 적고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심_{下心} 과 참회_{懺悔}

- 수행의 두 바퀴 ②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하심을 하고 바른 참회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는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식이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깊은 집중을 통해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과 내면 관찰을 통해 번뇌를 정확히 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방법으로 얻은 것을 통해 번뇌를 녹이는 수행이 있다.

고행

여기에서 내면 관찰을 정확히 하도록 돕는 것이 고행이다. 수행은 일정 부분 고행을 수반한다. 수행에서 고행이란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육체에 얽매어 있다. 이렇게 얽매인 인간의 의식은 육체의 고통에 한없이 나약해진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은 어떤 의식의 속임수로도 피할 수 없다.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통에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정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느껴보



Photo by Anne Nygård@Unsplash

는 것이다. 인간이 육체를 뒤집어쓰고 있는 이상 얼마나 제한적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또한 그런 약한 존재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지 알게 된다.

사실 모든 수행은 어느 정도의 고행을 동반한다. 수행은 대부분 인간의 육체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행은 인간의 의식을 깨어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몸에 고통을 줄 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의별 짓을 한다. 정신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도 하고 의식을 놓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짓을 해도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서는 마음을 꾸밀 수 없고, 가짜 마음으

로는 버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중생심을 더 잘 알아챌 수 있게 된다.

선지식 善知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선지식이다. 선지식은 단순히 스승의 의미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지식을 전하고 인품을 닦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선지식이란 제자가 마음공부를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힘든 관문을 넘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경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인간은 사실상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말은 하심과 참회를 통해서 자신을 깎아나간다고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간혹 그런 한계점을 스스로 넘어가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수행하는 자신이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내 머리가 천정에 닿았을 때 그 벽을 인식시켜 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식이 절대 필요하다.

붓다께서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양변을 여윈 중도의 길을

설하셨다. 그래서 후자들은 고행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 붓다께서 말씀하신 배경과 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시절 인도는 문화의 중흥기로, 여러 실천사상가와 실천철학자가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도 있었고 극단적인 고행주의자도 있었다. 쾌락주의자들은 윤회를 부정한다.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실적인 쾌락을 즐기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에너지 고갈과 정신적 피폐로 빠져들게 된다. 이것을 단멸론 斷滅論이라고 한다.

반대로 고정불변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영혼이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주론 常住論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영혼 불변의 자아의 정화를 통해 해탈한다고 주장한다.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이 고행이다. 그래서 점점 더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된다. 붓다께서는 극단적인 고행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의미 없음을 설파하며 양변을 여윈 중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붓다께서도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전에 고행을 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고행하며 지낸 시기가 나중에 중도와 연기법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입동은 24절기의 열아홉 번째 절기로, 한자로는 ‘설 립^立’, ‘겨울 동^冬’이다. 절기상 겨울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태양의 황경이 225도일 때이며, 양력으로는 11월 7일 또는 8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계절의 초입을 나타내는 절기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등에서 ‘입^立’ 자는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곧’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입동은 당장 겨울이 아니라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터이니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뜻이다. 실제로 입동 무렵의 날씨는 아직 가을 기온에 머물러 있으며, 물과 땅 역시 입동 후 약 보름이 지난 소설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얼기 시작한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냉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무를 땅에 구덩이를 파고 저장하기도 한다. 추수를 마친 후 들판에 놓아두었던 벧짚을 모아 겨우내 소의 먹이로 쓸 준비도 한다.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기 후까지 옛날과 많이 다르니 그저 참고할 일이다.



Photo by Anne Nygård@Unsplash

입동을 즈음하여 예전에는 농가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다. 대개 음력으로 10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날을 받아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고, 약간의 제물을 장만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곳간과 마루, 그리고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다. 입동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치계미 雉鷄米라고 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본래 치계미란 사포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했으나, 마을의 노인들을 사포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기인한 풍속인 듯하다.

합을 품은 모자합^{母子盒}

청자 모란 무늬 국화 모양 합

위드다르마 편집실



고려 13세기, 개성 부근 출토, 전체 높이 8.8cm, 뚜껑 높이 3.3cm, 입 지름 16.1cm, 높이 4.2cm, 국립중앙박물관 강민경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합이란 무엇인가?

우묵한 그릇 위에 꼭 맞는 뚜껑을 얹어 닫게 한 그릇을 가리켜 보통 합^盒이라고 합니다. 합은 그 안에다가 무언가 바깥 공기를 자주 썩면 안 되는 물건을 넣기 위해 만듭니다. 예컨대 떡을 거라든지, 화장품이나 장신구 같은 귀한 물건들 말이지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용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삼국 시대 무덤에서 나오는 토기 합을 보면 둥글게도 만들고 각지게도 했는데, 모양에 따라 쓰임새가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흙으로 합을 빚어 구워 만들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뚜껑과 몸체를 각각 따로 만들어 구워야 하므로, 비록 가마 안에서 터지거나 주저앉지 않더라도 둘을 합쳤을 때 틈 없이 딱 들어맞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품은 어미를 본뜨다

이 합은 고려 13세기쯤에 만들어졌습니다. 서리를 맞아도 시들지 않는 절개를 뜻하는 국화 모양으로 제법 크게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을 새겨 넣었습니다. 좋다는 건 다 모았군요.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도대체 저 위의 나전 합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짠! 어떻습니까. 합 속에 또 합이 들어 있지요? 가운데에 조그만 유병^{油瓶}을 두고, 작은 합 네 개를 그 옆에 둘렀습니다. 큰 합이 따로 있고, 그 합이 다른 합들을 품었습니다. 이런 합을 어머니가 자식을 감싸안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모자합^{母子盒}’이라고

합니다. 큰 합이 어머니 모합^{母盒}, 작은 합이 아들딸 자합^{子盒}인 셈이지요.

이 모자합은 주로 여성의 화장품용품을 담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유병에는 향수나 머릿기름을 넣고, 작은 합에는 분이나 연지 같은 화장품을 담았겠지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 큰 합은 파우치나 샐도 팔레트고, 저 귀여운 병은 이른바 ‘갈색 병’이고, 저기에는 28호가 들어가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모자합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시켓바늘을 잠깐 700여 년 전으로 돌려보시지요. 목적지는 고려의 수도 개경, 어느 세족^{世族}의 집 안채입니다.

규방^{闈房}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화려하게 돈을 새긴 거울걸이가 있고, 그 위에는 반짝거리는 구리거울이 얹혀 있군요. 나무로 만든 빗이 있는 걸 보니 이제 막 머리단장을 끝낸 모양인가 봅니다. 예쁜 가락지를 낀 여인의 손가락이 거울걸이 옆을 향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모자합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여인은 그 모합의 뚜껑을 들어 엽니다. 그 안에는 자합과 유병이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유병과 합 하나를 꺼내 듭니다. 유병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의 향유^{香油}를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린 뒤, 조심스레 얼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합의 뚜껑을 살포시 열고, 그 안에 든 분을 작은 붓에 살짝 묻혀 얼굴로 가져갑니다. 토닥토닥, 거울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지면서 차츰차츰 미소가 번집니다.

사람은 가고 왕조도 쓰러졌는데

말 없는 저 청자 모자합은 수백 년의 시간을 달려서 오늘 여기 남았습니다. 박물관 진열장 안에 들어앉은 뚜껑을 약간 열어 유병과 합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자합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말을 걸곤 합니다.

‘당신이 담고 있던 화장품을 썼던 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아이를 여럿 낳아 잘 길렀던 어머니였던가요? 고려시대 어머니도 그대처럼 모든 자식을 품에 안은 존재였던가요? 지금 우리네 어머니가 그러한 것처럼...’ 상상 속에서는 어느새 유물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만, 늘 그렇듯 박물관의 유물은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다만 화려한 무늬와 광택, 그리고 그 넉넉한 품 안에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만을 보여준 채로...

바로, 오늘이다!

신로사

한문고전번역가, 성균관대학교 한문학 박사

사람이 오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서부터
세도^{世道}가 잘못되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오직 오늘에 있다.

自人之不知有當日而 자인지부지유당일이
世道非矣. 세도비의.

昨日已過, 明日未來, 작일이과, 명일미래,
欲有所爲, 只在當日. 욕유소위, 지재당일.

-이용휴^{李用休}, 1708~1782, <탄만집^{灘漫集}>, '당일헌기^{當日軒記}'

혜환^{惠煥} 이용휴는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이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인 성호 이익에게 수학하였다. 천재적인 인물로 알려진 이가환(1742~1801)이 그의 아들로, 문장은 물론이고 천문학, 수학에도 정통한 인물이다. 그러나 1801년 신유사옥^{辛酉史獄} 때 옥사하면서 이용휴, 이가환 부자의 학문과 문장은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용휴는 성호 이익의 학문을 계승하였지만,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포의로 살았다. 조부 이하진이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 때 유배되어 죽고, 숙부 이잠이 갑술환국^{甲戌換局}, 1694 때 옥사하는 등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휴가 출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했을 법한데, 이용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훗날 다산 정약용은 이용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영조 말엽, 당시 명망이 으뜸으로, 학문을 닦아 스스로 새로워 지려는 자들이 모두 찾아와서 문장을 다듬었다. 몸은 포의^{布衣}로 있었지만 30년 동안이나 문단을 장악했으니, 예부터 없었던 일이었다.” -<정현묘지명^{貞軒墓誌銘}>

위의 문장은 이용휴가 신^申 군에게 써준 기문^{記文}, '당일헌기^{當日軒記}'의 첫머리이다. 하루가 쌓여서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모여서 한 해가 되니, 날마다 묵묵히 수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이 문장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진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이킬 방법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비록 3만 6천 일이 이어져 온다고 하더라도, 그날에는 각기 그날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으니, 실로 다음날로 미룰 여력이 없다.”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불완전한 기억으로 존재하는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부정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지 환상으로 오늘을 헛되이 보내기 쉽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느라 분주하다.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이 ‘당일(當日)’이 되지 못하고, ‘공일(空日)’이 되어 버린다. 깨달음을 얻은 현자(賢者)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화극 <파랑새>의 털털과 미털은 파랑새를 찾아 과거도 가보고 미래도 가보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자기 집에 있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쩌면 털털과 미털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용휴는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Photo by Kaja Kadlecova@Unsplash

“날(日)에 길흉(吉凶)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매일매일 현재에 충실하여 착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결국 그날들이 모여서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길일(吉日)로 할 것인지, 흉일(凶日)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하나 둘
털어내며 조금씩
야위어가는 나무들

흠칫 뒤 물리서는
구름들

산마루 걸터앉은
저녁노을

휘익~ 새들의
울음마저 마르다

아직은
푸름이 자리하지만

바람도 햇살도
만질 만하지만

가슴속 하늘은
높아져 있는 듯하다.

나에게 묻는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실로 오랜만에 독후감을 써 보기로 한다. 중·고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썼던 게 마지막이었으니 4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 억지추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독후감 운운하는 것은 최근에 읽은 책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뜻이다. 문장은 쉽게 읽혔고, 담담하게 풀어나간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 속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는 지금 그 책을 세 번째 읽는 중이다. 첫 번째는 이야기에 빠져서, 두 번째는 행간에 담긴 의미를 더듬으며, 세 번째는 치밀한 문학적 기법에 놀라면서.

내 인생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첫 장편소설 <연을 쫓는 아이>The Kite Runner다. 2003년 5월 미국에서 발행돼 2007년에 같은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이 작품의 배경은 할레드 호세이니가 태어나서 열여덟 살까지 자란 아프가니스탄이다. “1975년의 겨울로 인해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그해 겨울로 인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주인공 아미르의 회상처럼 이 이야기는 1975년 겨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시작돼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봄이 오기 시

작하는 3월 어느 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아프가니스탄이 짙어져야 했던 파란波濤의 역사 속에 그 겨울 어느 날 저지른 어린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인간 아미르의 고뇌와 화해의 여정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그려져 마치 내 이야기인 듯 몰입과 공감의 수위를 높여주었다.

소설은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때로는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보다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담는다. 어쩌면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도 <연을 쫓는 아이>를 통해 아픈 역사에 처했던 고국을 떠난



이민자가 갖게 되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주인공 아미르의 이야기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삶처럼 읽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미르와 하산의 인종과 종교, 신분을 초월한 우정도 아름답지만, 하산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 괴로워하는 아미르의 죄책감이나 떠나온 조국에 대한 부채감에서 느껴지는 인간미가 고맙기도 하다.

간략하게라도 중요한 줄거리를 정리해 보자면, ‘연을 쫓는 아이’라는 제목처럼 이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인 연싸움 대회를 큰 축으로 한다. 연싸움 대회에서 우승한 날, 아미르에게 연은 최고의 영예였으나 형제처럼 자란 진실한 친구이자 충직한 하인 하산을 배반하는 칼이기도 했다. 아세프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하산을 외면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하산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게 된 것이다. 훗날 먼 이국땅 캘리포니아 하늘에 높이 날아오른 연은 하산의 아들 소랍을 통한 용서와 화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던 유약한 소년 아미르가 강직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도 몽클하다. 소련군에게 점령된 카불을 떠나 가난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를 통해 자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버지에게 의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긴 아버지의 흔적에 의해 규정되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내내 ‘바바의 아들’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지워낼 수 없음을,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이 묘하게도 닮아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는 소라야와의 행복한 결혼생활 속에 성공한 미국인의 삶을 살아가던 아미르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라힘 칸의 전화를 받고 폐허가 된 조국, 탈레반의 횡포로 무법천지가 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찾게 된다. 예상대로 라힘 칸은 아미르의 잘못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산이 이복동생이고, 탈레반에게 사살됐다는 사실과 함께 고아원에 남아있는 하산의 아들 소랍을 구출해 달라는 간청을 한다.

서른여덟 살이 돼서야 알게 된 아버지의 비밀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아미르는 아버지의 거짓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다.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에 통렬한 아픔을 느끼면서 우여곡절 끝에 소랍을 찾게 된 그곳에서 하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소랍에게 저지르고 있는 아세프와 재회한다. 피할 수 없는 무모한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미르는 무자비한 아세프의 폭력에 맞서지만….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아미르를 구해낸 것은 소랍이었다. 어린 시절 하산이 고무줄총으로 아미르를 구해낸 것처럼 소랍이 고무줄총으로 아세프의 눈을 쏘아 쓰러뜨린 것이다.

소랍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하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 때문에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약속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을 시도한 소랍과 아미르의 처절한 기도가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아미르와 함께 미국으로 간 후에도 무언, 무표정, 무관심, 무감동으로 마음을 닫고 있던 소랍을 절망에서 깨어나게 한 것은 연이었다. 아미르와 함께 연줄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연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소랍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에서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천 번이라도.”라고 말하던 하산의 모습을 본 아미르는 “너를 위해서 천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마.”라며 소랍에게 떨어진 연을 잡아다 주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낮은 목소리에 연민과 사랑이 가득하다. 군주제 폐지, 소련 침공과 탈레반 정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을 어찌면 그렇게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

는지. 무채색에 가까운 밑그림에 주인공의 갈등과 자책, 이해와 속죄의 과정이 흑백에 가까운 수채화처럼 그려졌다고나 할까. 아미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빛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면서 한 인간으로서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오랜 여정도, 연싸움과 연 쫓기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물 흐르듯 유연하다.

촘촘한 구성, 저마다 살아 숨 쉬는 인물, 치밀한 복선을 품고 있는 한두 줄의 평범한 문장과 놀라운 반전, 나지막한 울림이 불러일으키는 깊은 감동이 내 마음에 수많은 물음표를 찍는다. 감히 답하기도 어려운 질문 앞에서 “한 찰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직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곳, 고통받는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해 본다.

불교의 경제관이 필요하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Photo by Tierra Mallorca@Unsplash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조 원에 달해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부채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용자를 받은 것이기에 은행은 이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많은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온다.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취직하면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해서 적은 월급으로 대출금 이자 내고, 월세 내고, 카드 대금 결제하고 나면

통장은 바로 빈다.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나면 지쳐서 차라리 직장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며 하루하루 사는 삶이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꿈을 포기하니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결국 피어 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안타까운 독신, 비혼주의의 노년은 그야말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빈곤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구조적 빈곤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원금 회수율이 99%에 이르는 아주 성공적인 은행이다. 그라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은 가난이다. 조금의 여유라도 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모든 은행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담보를 설정하는데, 담보가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라민 은행은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댈 수 있는 의지처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무함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치타공대 경제학과 교수직을 버리고 세

계 빈곤퇴치 운동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유누스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을 1983년 설립해서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공로로 유누스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방글라데시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일조한 것이다. 그라민 은행은 소액 대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탕주의는 실패율이 높아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흔히 불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는 종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불교의 경제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불교의 가르침으로 경제관과 경영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 에른스트 슈마허는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불교경제학'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밖에 이노우에 신이치의 <상생의 불교경영학>, 오구리 도에이의 <CEO 부처> 등의 책에서 불교의 경제관과 경영관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며 상생^{相生}, 즉 서로 잘살자는 것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기근과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불균형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처님의 중생 구제는 마음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본다. 젊은이들이 빛에 시달리고,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불교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욕심을 부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상생의 삶을 실천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엄마, 치매 걸렸어?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첫 수련 실습 시간에 보시록을 쓰라고 했다. 쓴 것은 한 달 안에 실천해야 한단다. 나는 이렇게 썼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애들이 내 아들로 태어나 30년, 32년이 지났는데 그 흔해 빠진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미와 자식 된 인연이 애처로워 이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이고,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내 새끼들아

이 까마득한 허공중에

내가 네놈들 어미 되어

그 이름 부르는 게

꼬리별 사라지는 그 째만큼이나 하랴.

이번엔 쓰지만 말고 입 밖에 내어보자 했다.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매일 하는 소리를 하다가 결심을 ‘콿!’ 하고서 드디어 그 말을 했다. “사랑한다, 우리 아무개.” 그랬더니 저쪽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졌다.

“엄마, 치매 걸렸어?”

그 녀석은 옆집에 사는 넷째 언니가 쓰던 차를 물려받아 명의도 바꾸지 않고 쓰고 있었다. 그 후 자동차세는 꼬박 내 뚫이 되었다. 그 녀석은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치매 걸린 소리’를 하고 며칠 지난 후였다.

“엄마, 30만 원 보냈어. 20만 원은 자동차세 내고, 10만 원은 이모들이랑 점심 한 끼 하세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스승의 처방전에 따른 좁쌀만 한 보시는 불과 며칠 만에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왔다. 정말이지,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은 알아갈수록 신비한 존재다. 사람에게서 신비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신비한 것은 ‘느낌’이라는 마음의 반응이다. 자기 속에서 피고 지는 느낌을 조금만 살펴봐도 사람의 정서는 어떤 감광지感光紙보다도 섬세하게 감응하고 있음을 백 퍼센트 수공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인식하면 그것은 단순히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식은 존재 속에 느낌이



라는 섬세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그 에너지는 존재 변용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욕과 인정욕이 채워진 존재는 그다음 단계로 올라서서 자아실현욕이라는 존재 최후의 욕구를 발동시킨다.” 그런데 그 사랑욕과 인정욕을 채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한마디 긍정적 말, 한 토막 긍정적 표현이다. 그 작은 교류가 존재 속에 숨어 있는 성장욕을 일깨워서 부처를 탄생시킨다.

이토록 섬세한 상호작용으로 엮어지는 이 세계의 주민들에게 -다른 존재는 물론 나 자신까지- 참으로 무관심하고 거칠게 대해왔음을 돌아본다. 긍정적 표현은 긍정적 에너지를 일으키고, 부정적 표현은 부정적 에너지를 일으킨다. 인과로 작동하는 존재계. 존재 앞에서 부디부디 정성스럽게 깨어 있을 일이다.

깊은 사랑이 지나쳐

우벽송

성악가, 시인, 현대미술가
이탈리아 외 독창회, 오페라공연 다수
저서 <닥치고 슈베르트>

그대와는 다른 차원을 살다 간 슈베르트는 돈이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음악으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징징대긴 했어도 주어진 환상illusion에 충실했던 오스트리아 젊은이였다.

사뭇엘 베케트가 가장 좋아했던 슈베르트,
우베르트가 가장 좋아했던 사뭇엘 베케트,
슈베르트는 우베르트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분명 아주 좋아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생명체가 간혀 있다고 알고 있는 시공에, 또한 인간의 가치에, 그리고 규범에, 논리에 속지 않는, 아니 속지 않으려고 심히 발악하는 사람은 은연히 존재해 왔다. 베케트, 슈베르트, 분노의 바리톤 우베르트, 그리고 차분한 그대가 있다.

덤벙대는 사람은 속고 있는 사람이며, 분주한 사람은 누굴 속이고 있는 것이며, 바쁜 사람은 누구한테 속고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이 나갔으니 바쁜 것일 테고, 바쁠수록 정신이 더 없는 것이다.



Photo by Rajesh Kavasseri@Unsplash

고로 진정한 예술가는 게으르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며, 예술과 직접 관련 없는 것에는 관심도 열성도 성의도 없다. 그들 눈에서 광기가 나는 이유는 눈을 자주 깜박거리지 않은 데서 오는 후유증보다는, 살아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지나쳐 너무 자주 운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나 차분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베케트와 슈베르트와 비트겐슈타인도, 자코메티도, 장자도 자식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노후대책이 없었다. 예술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

사회라는 집단 송장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 위험인물들이다. 알면 안 되는 걸 슬쩍 알아차린다는 것은 인류라는 지구상 역대 최악의 범죄 집단 안에서는 반역이요, 반동이요, 더 나아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은 늘 “그대 빨리 사라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였다.

인생 예찬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인생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인생관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1807~1882)다. 그는 이러한 허무주의에 맞서 그의 시 <인생 예찬(Psalms of Life)>을 노래했다.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슬픈 말투로 내게 말하지 말라

Life is but an empty dream!

인생은 단지 헛된 꿈이라고! (중략)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인생은 실재하는 것! 인생은 정직한 것!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또한 무덤이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다. (중략)

Let us, then, be up and doing

그러니, 우리 일어나서 행동하자

With a heart for any fate

그 어떠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Photo by Jed Villejo@Unsplash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 추구하며

Learn to labor and to wait

일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더욱 엄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창조적 자기 조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저마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글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고, 책은 재판, 삼판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렇게 인생은 일회성을 갖는 삶이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엄숙해지고 진지해지는 것이다. 유흥이나 도박하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 인생이다. 이 말

은 인생에는 가치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된다는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젊은 혈기로 그 이상 실현을 위해 정열을 바쳐 투쟁해 가다가도, 그 이상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움을 알고부터는 관심을 자기에만 집중하여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단순히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생의 가치와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준다. 삶의 가치와 의무를 잊은 채,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을 뒤쫓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을 향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훗날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가능성의 싹마저도 싹둑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롱펠로는 <인생 예찬>에서 “일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추구하면서 꾸준히 일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조금하게 먹은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는 속담의 진리가 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을이면 찬바람이 닿는 곳부터 산색이 변하기 시작한다. 산은 정상부터 조금씩 붉어지다가 노랗게 변하며 가을빛은 이내 산 아래까지 화려하게 물들인다. 가을이면 무상^{無常}을 배운다. 산빛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쯤이면 봄에 푸르던 기상도 떠올리게 되고, 새해가 시작될 무렵의 마음가짐도 되짚게 된다. 그 마음과 빛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무상하다. 어느 것 하나 자취 없이 사라졌다.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다짐했던 각오도, 봄날의 꽃도 남아 있지 않다. 대신 가을빛의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다. <무상의 노래^{無常偈}>에서 ‘무상은 열반에 이르는 문이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배이다^{夫無常戒者 入涅槃之要門 越苦海之慈航}.’라고 했다. 무상하기에 변할 수 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존재를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할 만한 자성^{自性}이 없다는 통찰은 삶에 대한 축복이다. 죄업에도 자성이 없다.

인도 뉴델리에는 티하르 교도소가 있다. 만 명 이상 수용하는 이곳은 인도에서 제일 큰 교도소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다. 범죄와 교정을 연구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곳이다. 낡고 보잘 것없는 시설의 이 교도소는 말 그대로 죄를 교화하는 데 성공했다. 교정의 시범 사례가 된 데는 한 여성의 힘이 있었다.

1993년도 이곳에 교도관으로 부임한 키란 베디^{kiran Bedi}는 재소

자를 상대로 자신이 수행한 위빠사나 명상과 사띠 수행법을 가르쳤다. 열흘간의 집중 교육으로 시작된 티하르 교도소의 사띠 수행은 한꺼번에 천 명 이상의 재소자와 함께하는 수행법으로 발전했다. 하루도 폭력과 살인이 멈추지 않던 교도소 안이 변했다.

생명의 가치에 무관심한 테러범에서부터 종교 분쟁의 전사, 살인자, 마약상, 성범죄자, 조직 폭력배 등 온갖 범죄의 진열장과 같았던 곳이 수행의 도량처럼 변해버렸다. 재소자 중에 백 명 이상은 매일 일과를 하며 수행한다. 이 교도소를 거친 이의 재범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말할 나위 없다.

여자 친구를 납치한 죄목으로 티하르 교도소에 수감됐던 브라빈 짜우라^{Praveen Chwla}는 복역 후에 명상 지도자가 됐다. “교도소 안에서 사띠 수행을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닦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자유입니다.” 자유가 박탈된 곳에서 가장 큰 평화를 얻은 것이다.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미국이다. 다른 선진국 수준보다 다섯 배나 범죄율이 높고 교도소 수감자는 근

200만 명 이상이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많은 방법이 시도됐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이 티하르 교도소의 사례를 주목한 것은 당연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불교 수행법을 도입한 곳은 시애틀의 북부 재활기구Seattle Northern Rehabilitation Facility이다.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불교 수행을 실천하는 교도소이다.

이곳에서는 오렌지 색 수의를 입고 묵언을 한다. 모든 일과가 사띠 수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육식과 흡연이 금지된다. 네 시 반부터 시작된 일과는 하루 최소 열 시간의 참선이 기본적으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팔정도과 사성제의 상징 앞에 참배한다. 아주 작은 양의 음식만이 제공되고 참선 중엔 자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교도소가 아니라 무문관無門關이라 해도 될 정도의 수행이다. 업과 습관 속에 굳어진 자아를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다. 교정 프로그램 담당자는 불교 수행법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아르투로 에스쿠에르는 열한 살에 갱이 됐다. 또래들도 그 나이가 되면 총을 지니고 마약을 파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열두 살 때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데 가담했고, 열여섯 살에 살인했다. 교도소

에 갇혔다. 참선을 배웠다.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찾았다.

자기 손으로 염주를 깎아 굴리며 참선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곳에서 싹을 틔운 결과이다. 죄에는 자성이 없기에 살인을 밥 먹듯 저지르던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있다. 무상을 자각하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 있는 교도소라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면 철장도 자유를 속박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마음은 과거에도 머무르지 않고, 현재도 머무르지 않으며, 미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不可得 過去心, 不可得 現在心, 不可得 未來心.”라고 하셨다. 머무르지 않으면 어느 것도 마음을 속박할 수 없다.

무상하기에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업도 운명도 심지어는 생긴 모습도 변한다. 잘생기고 싶으면 자주 웃어 보자. 좋은 표정과 마음씨가 생김새까지 변화시킨다. 어떤 고통도 벗어나지 못할 것은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변하겠다는 의지뿐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존경받는 삶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화려한 수레도 낡아 부서지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허물어져 간다.
그러나 진리와 덕행은 무너지지 않고
선한 이들과 서로 전한다.

나이 들어서도 내면을 가꾸지 않고 외모로만 승부하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빛나는 것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훌륭한 인품과 젊은이가 넘어서기 어려운 풍부한 경
험, 그리고 후학을 이끌어줄 빛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져야 어디 가서든 노인 대접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아무리 분칠하고 겉모습을 꾸민들 젊음의 그 싱싱함을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법의 그늘 아래에서 끊임없
는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를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존경받는 노
인이 되는 길입니다.

화령 저,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중에서



Photo by Sebastian Pichler@Unsplash

‘연작안지 燕雀安知 鴻곡지지재 鴻鵠之志哉’라는 말이 있다. ‘땅 위의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창공을 나는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라는 말로, 곧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큰 뜻을 알 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자기 말을 남이 진심으로 알아듣지 못할 때 자탄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사마천 司馬遷의 『사기열전 史記列傳』 ‘진섭세가 陳涉世家’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진시황 秦始皇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구축할 때 진승 陳勝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말한 데서 유래가 됐다.

진승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도 실정이 계속되자 세계 최초의 농민 봉기를 일으킨 인물이다. 진승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날뎀을 팔아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큰 포부와 사명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어느 날 남의 농사일을 하던 중 잠시 쉬며 참을 먹고 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장래 부귀한 몸이 되거든 서로 잊지 말기로 합시다.” 이 말이 떨

어지자, 주위에 쉬던 동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날뎀팔이 주제에 무슨 잠꼬대같이 부귀한 몸이야.” 하면서 비웃었다. 진승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차호 嗟乎, 연작안지홍곡지지재 燕雀安知鴻鵠之志哉”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 진승은 만리장성 축조에 끌려갔다. 가는 도중에 대택향 大澤鄉에서 큰 장마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며칠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가더라도 당시 법에 따르면 형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다. 어차피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 이르자, 진승은 친구인 오광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진승은 무리를 모아놓고 이르기를, “왕후장상 王侯將相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진승은 많은 사람의 호응으로 세력이 점차 강성하게 되자 마침내 나라를 세웠다. 국호를 장초 張楚라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에필로그 진승이 왕이 되자 소문을 듣고 함께 머슴살이하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진승은 처음에는 친구를 환대했으나, 친구가 진승의 옛일을 자꾸 말하니 어떤 사람이 진승에게 간하였다. “빈객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망언을 서슴지 않으니, (왕의) 위엄이 서지 않습니다.” 이에 진승이 그 친구를 참수하니, 진승의 다른 친구들이 차례로 떠나 모두 사라졌다.

결혼, 종교 그리고 이혼

남혜 정사

불교총지중 통리원 사무국장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와 일부 유럽처럼 종교적 갈등이 그리 큰 사회가 아니다. 그렇다고 서로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일이 드문 나라도 아니다. 특히 불교와 기독교 집안의 연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파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적잖은 마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연애와 결혼에서 종교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정면으로 다루는 분위기가 아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사는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마찰과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공론화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다.

최근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결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의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1화에서 출연자들의 첫 등장과 함께 보여주는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종교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출연자 14명 중 남녀 각 한 명씩, 두 명의 이혼 사유가 바로 종교였다.



광수라는 이름의 출연자는 불교인 반면 전 배우자는 기독교였는데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신혼생활 중에 종교를 둘러싼 마찰이 거셌다고 한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결혼식 날에도 예배나 찬송가 등을 예식에 포함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수는 이혼하게 된 큰 사유 중 하나가 종교 문제였다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경우, 특정 종교^{기독교}는 안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여자 출연자 중 첫 번째로 등장한 영숙도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종교였다. 영숙 집안은 천주교였는데, 상대 집안은 기독교였다. 신혼생활이라 할 것도 없는 매우 짧은 결혼생활의 파탄에는 종교적 갈등이 작지 않은 원인이었듯 보였다.

결혼생활에 종교가 개입되면 종교 활동으로 가정생활이 소홀해지거나, 종교적 행위가 가족 행사와 자녀 양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교 단체에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행사에 지나친 경

제적 자원 투입으로 가정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에 심취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회적 교류를 제한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외부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함께 하도록 요구하거나, 집안 내에서 지나친 종교적 규율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내용 중 종교에 관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다. 사라가 동은에게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냐?”고 말하자 동은이 이렇게 답한다. “큰일 나, 사라야!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야. 너네 주님 개박쳤어, 너 지옥행이래!”

현시대는 다종교 사회이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미 우리 삶, 우리 주위에서 어떤 종교적인

절대 원칙이란 건 지켜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종교의 엄격함이나 배타성도 많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졌다. 불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천주교적인 것, 무속적인 것 등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 속에서 서로 섞이고 공유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있어 종교라는 요소가 덜 엄격하게 적용되고,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상대의 행복을 통제하지 않고,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적어도 사랑과 결혼에서만큼은 종교에 대한 관용과 여유로움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원칙과 신념에 얽매어 종교라는 철벽으로 나누어지는 사회보다는 사랑과 자비로 섞이고 공감되는 사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오늘은 좋은 날

황학현, 이종만 작사, 이종만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오늘은 좋은 날

이종만 작곡 / 이종만, 황학현 작사

오늘은 좋은 날 - - - 부처님오신 날 -
 온갖꽃피어나는 - - - 만생영축제의날 -
 오늘은 기쁜 날 - - - 님께서오신 날 - - -
 별담은 새벽이슬 - - - 연꽃이피는 날 -
 한 줄기 찬 - 란 한햇살이 - 눈부서 -
 온 세상 빛 - 이 되어 노 - 래하리 -
 오늘은 좋은 날 - - - 부처님오신 날 - - -
 진리의항성이 - - - 온누리퍼지네 -
 환의의노래로 - - - 온누리퍼지네 -

불자에게 찬불가를 대표하는 곡을 물어보면 <오늘은 좋은 날>을 꼽으며, 연등축제 상징곡이기도 하다. 이 친숙한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바로 ‘좋은 벗 풍경소리’를 창립한 이종만 선생님이다.

창립 이듬해인 1997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젊은 불교를 만들기 위해 이종만 선생님에게 <길 떠나자>처럼 신나는 노래를 주문했다. 연등축제를 한 달 남짓 남겨둔 때였다. 갑작스러운 주문에 촉박한 일정,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도저히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줄 알았건만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완성돼 그해 연등회 회향 한마당에서 처음 공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오늘은 좋은 날>은 오롯이 연등회만을 위한 <연등회의 노래>라는 별도 음반을 제작하는 계기가 됐고, 찬불가의 대중화에도 큰 몫을 했다. 이후로도 풍경소리는 연등회보존위원회 의뢰를 받아 찬불동요와 함께 <연등회의 노래> 음반을 해마다 발매해 부처님오신 날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2010년에는 국악인 박애리, 아이돌그룹 ‘연꽃 소녀들’과 함께 앨범 작업을 했고, 2019년에는 불자 가수 김국환 씨가 트로트 찬불가 <불자라서 행복합니다>를 불렀다. 찬불가를 대중에게 친숙하게 해주고 싶은 이종만 선생님의 찬불가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성도^{成道} 합시다와 성불^{成佛} 하세요

혜광 정사
시법사 주교



금강합장



연화합장

불교총지종은 밀교 종단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단어 중 현교와 뜻은 같지만, 용어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서원당^{善願堂}과 법당^{法堂}

서원당은 밀교의 법당으로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 수행처입니다. 법당은 부처님이나 보살님 등 신앙의 대상을 모신 전각을 말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비로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웅전, 관세음보살님은 관음전으로 부릅니다.

2) 교도^{教徒}와 신도^{信徒}

현교의 신도와 같은 말인 교도는 총지종의 교리를 받들고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자 교도는 현교와 밀교 모두 '보살'로 부릅니다. 남자 교도는 '깨달은 자의 제자'라는 뜻에서 각자^{覺者}라고 부르며, 현교의 거사^{居士}와 같습니다.

3) 금강합장^{金剛合掌}과 연화합장^{蓮華合掌}

합장은 본존, 불단, 스승, 교도에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밀교의 금강합장은 양손의 손가락 사이를 교차하여 금강처럼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교의 연화합장은 양손을 합쳐 중간에 연꽃 봉오리가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4) '성도합시다'와 '성불하세요'

스승, 교도들 간에 인사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성도합시다'는 부처님이 되도록 도를 닦자는 뜻이며, '성불하세요'는 부처님이 되도록 배우자는 뜻입니다.

5) 승직자 호칭

현교의 남자 승려는 비구, 여자 승려는 비구니입니다. 총지종은 승직자를 '스승님'이라 총칭하며, 남자 승직자는 정사^{正師}: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스승, 여자 승직자는 전수^{傳授}라고 합니다.

6) 광명진언

총지종 : '옴 아모카 비로자나 마하 무드라 마니 반메 지바라 파라파티야 흠'

현교 :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를다야 흠'

2. 짜증이 많은 아이

옆에서 놀이하던 동생이 다가오자,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발버둥 친다. 동생의 몸을 밀며 '저리 가!' 한다. 진정시키려 해도 아이는 '아니야'라고 소리 지르며 놀잇감을 던진다.



● 원인

-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몸이 피곤해서 짜증을 내는 경우

- 동생이 다가오는 것을 자신의 쉼터를 빼앗기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
- 자기가 왜 불편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경우

● 지도방법

- 편안하고 행복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 일과를 잘 파악하여 피로감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 아이와 함께 음악 감상이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도록 한다.

※ 부모 위주의 생활 패턴을 따르는 경우, 아이의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영아기에 수면이 두뇌와 정서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아이의 수면 시간을 확인하고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6개월 영아의 수면 시간은 12~14시간이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II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l

바다 속 풍경

푸른 바다에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물과 문어의 정원에서 잠든
진주조개. 이빨을 드러낸 귀여운 아기 상어와 멋진 꼬리를 가진
장어, 야생의 거친 폭풍까지 마법으로 가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
네요. 해면과 해마를 지나온 예쁜 물고기는 문어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지난 호 정답

강	공	회		육			개	천	절
압			동	해	중	학	교		대
적	신	호		공			기	겁	다
		루		군			념		수
동	그	라	미		구	사	일	생	
방		기		지	척			로	
예	물		기		장	발		병	
의		시	대	정	신		금	사	빠
지	식	인		보		봉			삐
국			가	화	만	사	성		용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②㉑		㉑	
				③					
	④					⑤			
㉑		⑥	㉑		⑦㉑				
			⑧				㉑		㉑
⑨	㉑				⑩				
			⑪	㉑			⑫		
				⑬	㉑				
⑭㉑			#						
					⑮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로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국 정통 밀교종단
- ②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온통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라는 뜻
- ③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
- ④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
- 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함
- ⑥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병의 발생 상황과 증세 등을 물음
- ⑦ 식을 재료로 하여 만든 온갖 물건
- ⑧ '인생을 올리는' 농심 매운 라면
- ⑨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 ⑩ 사진이나 영화 따위를 찍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물체
- ⑪ 폭이 좁고 긴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⑫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의 사찰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
- ⑬ 알기 쉽게 더해서 자세히 설명함
- ⑭ 한산도 부근에서부터 충무, 삼천포, 남해 등을 거쳐 전라남도 여수에 이르는 물길
- ⑮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세로 열쇠

- ㉑ 불에 타들어 가는 물체에서 튀는 작은 불덩이
- ㉒ 총지중이 발간하는 신문으로 창간 후 이달에 300호를 맞았다.
- ㉑ '종합 부동산세'를 줄여 이르는 말
- ㉑ '쓸모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
- ㉑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괴롭고 싫다
- ㉑ 머리와 목에는 털이 없으며 이 부분이 빨강, 파랑, 청백색으로 변하는 새
- ㉑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
- ㉑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알잡아 이르는 말
- ㉑ 정체가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아니한 것
- ㉑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
- ㉑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 ㉑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
- ㉑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 ㉑ 대한민국의 국가 1급 하천이며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 #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 사람이나 사물을 잘 포용하는 품성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법 공 남 혜 보명심 박미옥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건호
정희련 진 여 총지화 한철수 (재)불교총지중유지재단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창운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랑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병수 전제우 김진문 이윤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중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Photo by Svitlana@Unsplash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중략)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세 권씩 앞에 밀려 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200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수상 후 내내 고요함으로 울림을 주던 작가가 어느 재단이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저간의 감정을 반듯하게 보여주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참을성과 끈기를 말했다. 단순한 문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성찰 같았다. 그래서 그녀의 ‘상상 속 책들’이 더욱 궁금하다.

동갑내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위드다르마 독자들도 다음 호를 기쁘게 상상하는 그날을 위해 더욱 즐기고 닦고 조이겠다고 다짐해 본다.

발행일 총기 53(2024)년 11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11월호



지금 이곳을 두고
어디에 다른 세계를 구한단 말인가
극락도 지옥도
열반도 번뇌도
지금 여기
내 마음이 만들고 있는데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